



# 아쟁의 소리와 판소리 가락이 만났을때...

14일 오후 7시 30분 서울돈화문국악당

전통·창작 아우르는 아쟁 연주자 '물푸레꽃' '허튼가락' 등 4곡 연주 "아쟁 소리의 깊이를 관객과 공유"

활이 운궁하여 줄 위를 스칠 때마다 마음이 움직인다. 그의 왼손이 부드럽게 너울거리며 농현하면 다친 마음에 살이 돌는다.

'아쟁의 에반젤리스트'로 불리는 아쟁 연주자 정미정(44)의 연주회 '아쟁소리-가락(加樂)'이 1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돈화문국악당(예술감독 강은일)에서 열린다. 전통 아쟁 소리에 정미정의 더늠을 엮어 전통음악에서 발전된 창작음악을 선보이는 아쟁 프로젝트 공연이다.

더늠은 판소리 명창들에 의해 노랫말과 소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다듬어져 이루어진 판소리 대목을 의미한다. 명창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원래의 소리를 바꾸어 부르거나 아예 새롭게 소리를 짜 자신의 장기로 삼곤 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자신만의 스타일이자 자신만의 가락이다. 자신만의 문체나 화법처럼, 배운 것을 넘어 새로움을 창조한다.

이번 공연은 2019 서울돈화문국악당 공동기획 프로그램인 '운당여관 음악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종로구 운니동에 자리했던 운당여관은 고(故) 박귀희 명창(인간문화재 23호)이 운영하던 한옥 여관으로, 수많은 예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명소였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자 창작공간이었던 운당여관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기획



정미정은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연주활동을 통해 전통음악의 깊이를 더욱 깊게 표현해 온 연주자다. 14일 연주회에서도 전통 아쟁 소리에 자신만의 더늠을 엮은 새로운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사진제공 | 정미정

했다. 4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11개 팀을 선발했고, 6월 4일부터 20일까지 릴레이 공연을 펼치는 중이다. 정미정은 14일 무대의 주인공이다.

정미정은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연주활동을 통해 전통음악을 더욱 깊이 표현하는 아쟁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9호 한일섭제 박종선류 아쟁산조 이수자이며 성남시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18회의 개인독주회와 2인 음악회를 비롯해 러시아 IRKUTSK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차이코프스키음악원과 대만 국립예술대학 교류연주, 독일 루마니아 등 해외 연주를 통해 한국 아쟁의 깊고 아름다운 소리와 예술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월련, 달 그리다(신나라·2012)', 'Moon(Sony뮤직·2018)', '나의 사랑 아버지(Sony뮤직·2019)'와 같은 앨범을 냈다.

이번 연주회에서 정미정은 '물푸레꽃', '허튼가락', '아쟁·가야금 즉흥 푸리', '새타령-비조' 네 곡을 연주한다. 물푸레나무에는 '물을 푸르게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실제로 어린 물푸레 나뭇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긴 뒤 맑은 물에 담그면 물이 파랗게 변한다. '물푸레꽃'은 이 신비한 청아함과 물푸레나무에 얽힌 신화에서 영감을 얻은 곡이다. 경기 선율을 주제로 삼고 다양한 전통 장단으로 구성했다. 소아쟁과 타악만의 선율을 자유롭게 연주한다.

이날 연주회에는 문경아(가야금), 최영진(타악), 황민왕(장구)이 객원연주자로 정미정과 함께 무대에 선다. 생생밴드로 활동하며 주목받은 경기민요 소리꾼 신승태가 현대판 운당여관 주인으로 분해 무대를 소개한다.

정미정은 "전통음악은 회귀본능에 있어서 낯선 듯하지만 이미 익숙한 음악인 듯하다. 제 연주를 통해 아쟁소리의 깊이를 더 많은 관객 분들께 전하고 공유해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공연 단신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독일 투어

6월 10일~20일 | 독일 베를린



지하철 1호선

학전의 대표작인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 10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해외 투어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투어는 '지하철 1호선'의 원작인 '라인(Line) 1'을 만든 독일 베를린 GRIPS 극단의 창립 50주년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학전 김민기 대표가 변안한 '지하철 1호선'은 연변치녀 선녀의 눈을 통해 실직가장, 가출소년, 자해 공갈범, 잡상인 등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려가며 20세기 말 IMF 시절 한국사회의 모습을 풍자와 해학으로 담은 작품이다. 2018년, 10년 만에 다시 공연되어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DIMF 이벤트 티켓 '만원의 행복'

6월 15일~7월 5일 |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특설부스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가 전 작품 티켓을 1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을 15일부터 시작한다. DIMF가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티켓 이벤트인, 한국 창작뮤지컬 최초로 동유럽 라이선스 수출을 달성한 '투란도트' 등 DIMF의 15개 작품을 1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정된 좌석 수량으로 작품 당 1인 2매까지 제한을 두고 있으며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 신간



●천년의 질문(전 3권) (조정래 저 | 해냄)

대한민국 근현대 삼부작인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으로 1500만 독자에게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소설로 알린 조정래 작가가 신작 장편소설을 내놨다. 매일 11시간씩 집필에 몰두한 결과물로 원고지 3612매, 취재노트만도 130여 권에 이른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국민에게 국가

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고도 치열한 질문에 대해 뜨거운 응답을 던진다. 이 소설은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본과 권력에 휘말려 욕망을 키워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작가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직접 만나 심층적으로 취재함으로써 21세기 국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했다.

●사주혁명 (최제현 저 | 지식과 감성)

저자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알레르기를 알고 대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는 실용사주서. 저자는 삶의 알레르기를 안다는 것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의 혁명이라고 말한다. 일생일대의 사건사고를 만드는 원인이 '알레르기'인 합중변화에서 발생한다는 것.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그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하듯 운명의 독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책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성과 알레르기를 해석해 놓았다. 저자 최제현은 서울 경찰청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특이

한 이력의 소유자로 현재 제현음양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 교육·퍼즐

### 에듀윌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수강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저출산·고령화 사회...떠오르는 '사회복지사'

최근 정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공론화했다. 이에 '정년 연장'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15.7%에서 2030년 25%, 2050년에는 39.8%로 증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년을 연장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면 각종 사회, 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한다. 사회복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와 후원 업무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2만946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선보이고 있다.

에듀윌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핵심 개념서'를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이 개념서는 총 8과목의 시험 범위를 1권으로 정리해 빠르게 핵심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평생패스'와 2020년 제18회 시험까지 수강할 수 있는 '2020 단기패스'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1975명이 응시해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 스도쿠문제

Grid of numbers for a Sudoku puzzle.

### ■ 스도쿠정답

Grid of numbers for the solution to the Sudoku puzzle.